

	<h1>보도자료</h1>	2022. 2. 25 (금)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문의) 02-784-9862		

이재명 후보, 명확행 시리즈 ‘미술작품 선정 공모제’ 성과 소개 “공정한 대한민국, 예술 영역도 예외 없어..불공정 바로잡혀야 문화강국”

-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미술작품 선정 공모제’ 도입, 소수 화랑의 독과점 및 리베이트 문제 해결
- “허위 이력·독과점 등 예술계 불공정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국민이 다양한 예술 향유 할 권리 보장해야” …미술작품 선정 공모제 전국 확대 적용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25일 SNS를 통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미술작품 선정 공모제’의 성과를 소개하며 “예술인들의 노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모든 국민이 문화기본권을 보장받는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26번째 시리즈인 ‘미술작품 선정 공모제’는 공동주택이나 도산하 기관의 건축물에 설치될 조형물에 대한 공모를 의무화하고, 민간 사업자 또한 공모 절차를 활용해 미술작품을 설치하면 여러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축하면 건축비의 1%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시행 중이다.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의 기회를 보장하고, 시민들도 일상에서 예술을 누리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나, 작품 선정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특정 소수 작가·화랑의 작품이 독점적으로 선정되거나,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까지 오가는 폐단이 발생해왔다.

이에 이 후보는 2019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미술작품 선정 공모제’를 도입했다. 이 후보는 “최근에도 예술계에서 거짓된 경력과 허위 전시 이력 등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예술인들을 모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불공정의 폐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가기 마련”이라며 “예술작품 생산을 소수가 독점하는 순간, 국민이 일상에서 다양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공모제 도입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공모제가 도입된 이후 ‘5 작품 이상 출품 작가 비중(특정 작가 편중)’이 2017년부터 2018년의 기간 동안 8.2%였던 것에 비해 2019년부터 2021년 2월까지 5%로 줄었고, ‘1 작품 출품 작가 비중(다양한 작가 참여)’은 같은 기간에 대해 54.8%에서 65.7%로 높아지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몇몇 화랑으로서 독점하고 있던 기회를 손에서 놓아야 하니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각도로 집요한 압박이 들어왔다” 라면서도 “그런 저항을 돌파해 사회 전 영역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문화강국의 길이 멀리 있지 않다” 라며 “경기도에서 도입한 미술작품 선정 공모제 같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더 많은 예술인에게 기회와 문이 열리고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SNS 메시지 전문>

SNS 메시지 전문

<공정한 대한민국, 어떤 영역도 예외는 없습니다. ‘미술작품 선정 공모제’로 예술계 불공정 바로 잡았습니다.>

독과점과 불공정은 부패의 씨앗이 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무너뜨립니다. 경제 영역 뿐 아니라 다양성이 핵심인 예술 영역도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미술작품 선정 공모제’를 도입했던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축하면 건축비의 1%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있습니다. 예술인들에게 자유로운 창작의 기회를 보장하고, 시민들도 일상에서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와 달리 문제가 상당했습니다. 미술작품 선정과 설치 과정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다 보니 특정한 소수 화랑에 선정 작품이 편중되었고, 심사위원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출품 작가에 대해 금품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최근에도 예술계에서 거짓된 경력과 허위 전시 이력 등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예술인들을 모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이런 불공정의 피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예술작품 생산을 소수가 독점하는 순간, 국민이 일상에서 다양한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전국 최초로 ‘미술작품 선정 공모제’를 도입합니다. 공동주택이나 도·산하 기관의 건축물에 설치될 조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모를 진행하도록 하고, 민간 사업자 또한 공모 절차를 통해 미술작품을 설치하면 여러 가산점을 주도록 했습니다.

또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개선해 그간 늘 발생해온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5작품 이상 출품 작가 비중(특정 작가 편중)’이 낮아지고 ‘1작품 출품 작가 비중(다양한 작가 참여)’ 비중은 2017년~2018년 54.8%에서 2019년~2021년 2월 65.7%로 높아졌습니다.

몇몇 화랑의 입장에서는 독점하고 있던 기회를 손에서 놓아야 하니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각도로 집요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항을 돌파하여 사회 전 영역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몫입니다.

문화강국의 길이 멀리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예술인들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는 나라가 문화강국입니다. 경기도에서 도입한 미술작품 선정 공모제 같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리고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26. 경기도 미술작품 선정 공모제
#이재명은_했습니다